

가계대출 식 달걀 내리막... 기업여신은 뽕박질

가계대출 3000억으로 줄어... 주담대는 정책성 집행↑
포용금융 확대로 기업대출 한 달 새 3조9000억 경증

한은, 2월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금융시장 동향'을 11일 공개했다.

2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국내 금융시장은 3월 들어 중동 정세와 유가 상승 등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전반에서 변동성이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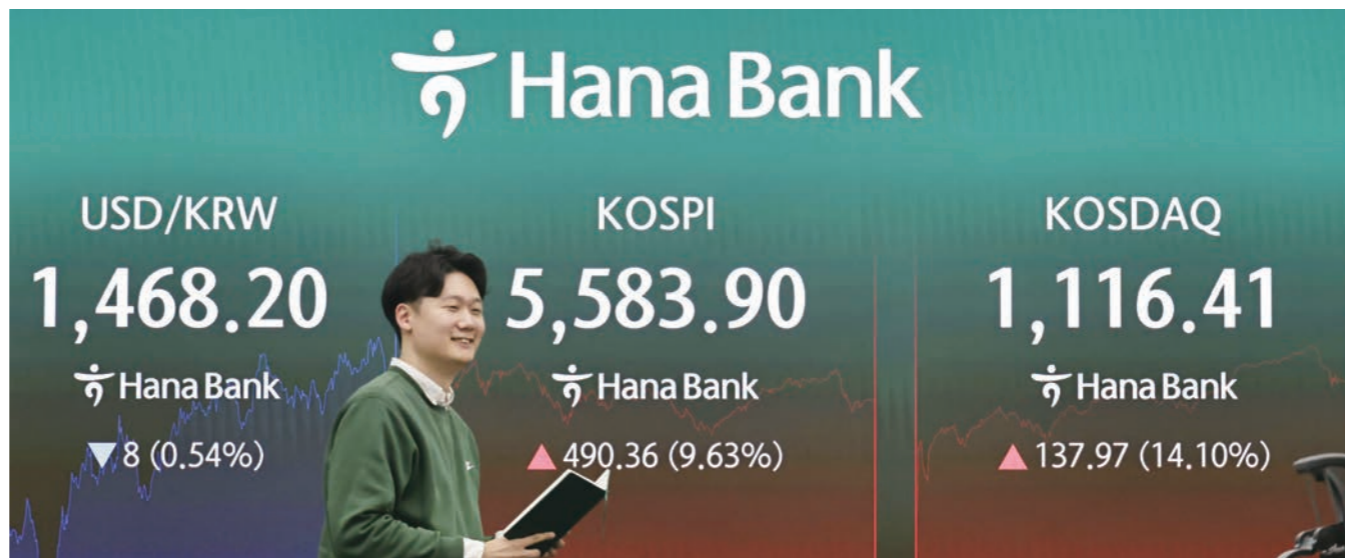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2월 중순 이후 구간 금리 상승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그러나 3월 들어 중동 상황 장기화 우려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큰 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주요 업종 실적 개선 전망과 정

부 정책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3월 들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반락했다. 코스피는 2월25일 6000선을 넘어선 뒤 2월26일 6307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 수신 또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월 91조9000억 원 증가에 이어 2월에도 48조6000억 원 증가에 이어 2월에도 48조6000억 원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자금 흐름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2월, 은행 수신은 1월 50조8000억 원 감소에서 2월 47조3000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자체 재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박미나 기자

정 집행 대기 자금 유입 등의 영향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은행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은 3개월째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1월 1조1000억 원에서 2월 3000억 원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말 주

택 거래 증가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했다.

반면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영향으로 기업대출은 1월 5조7000억 원 증가에서 2월 9조6000억 원 증가로 늘었다.

한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위축됐다. 회사채는 1월 2조 원 순상환에서 2월 4조 1000억 원 순상환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됐다. CP와 단기사채도 1월 순발행에서 2월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2월 가계대출 2조9000억↑

은행권 문턱 높이자 2금융권으로 이동

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축소된 한편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상용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한 2금융권 집단대출 증가의 영향이다. 가계대출 제한이 실시되기 전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 또한 반영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공개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2월 3000억 원 감소했음에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3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월 3000억 원 감소하며 전월이 이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 1조 원 감소보다는 둔화될 수 있다. 은행 자체 주담대의 경우 1조1000억 원 감소하며 전월의 1조7000억 원보다 감소량이 줄은 반면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세가 1조5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 3조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2조5000억 원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보험과 여전사는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3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데 따른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금감원, 보험사·대리점 검사 강도 강화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불완전판매·GA통제·건전성 동시 겨냥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검사 방향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천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검사 방향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품 설계와 판매, 유지·사후관리, 내부통제, 보험부채 평가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판매수수료 경쟁과 불완전판매, 보험금 심사 논란, 건전성 악화 우려를 한꺼번에 겨냥했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와 GA, 유관업 관계자들과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

모집시장 이슈와 과제, 보험 부문 감독 방향, 검사방향, 계리감독 선진화와 리스크 감독방향 등을 논의했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험사와 GA 현장검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 단계에서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1200%를 준수 여부, 미승인 보험내자자료와 영업교육자료, 절판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광고 규제 준수 여부, 작성·경유·승환계약이나 특별이익 제공 같은 고질적 위규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1200%를 보험 모집과정에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판매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 계약이라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초년도 수수료 총액은 최대 12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막고 불완전판매 유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이어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 선지급 수수료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 7월부터 1200%를 시행했다.

이후 보험사와 GA가 수수료를 우회 지급하거나 정착지원금 형태로 보상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감독당국은 현장 점검과 검사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시장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사망보장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요양·헬스케어·애프터케어 같은 신수요가 커지고 있고, 저성장 고착화와 시장 포화로 수익성 방어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동 정세 등 대외 불안으로 금리·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본자본비율 도입, 듀레이션 갭 관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책무구조도 시행 등 규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들의 영업재무-건전성 리스크가 동시에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 검사 기조는 적발과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옮겨간다. 금감원은 상품·분쟁·계리·검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검사 대상과 주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이지만 경미한

위규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을 유도하되, 소비자 피해를 낚는 근본 원인은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해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검사 범위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힌다.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부르는 보장한도와 환급률 설정,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 상품위원회와 최고고객책임자(CCO)의 역할 적정성, 최신 경험통계를 반영한 보험요율 산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과 사후관리 영역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과 심사기준 등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의료자문 제도 운영과 손해사정 업무의 적정성도 확인하기로 했다.

민원처리와 상품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시정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하고,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대책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